

# 음악창작소 선정 팀 해외 무대 발굴

### 소리축제,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사업 일환 '고니아'·'뮤즈그레인' 일본 투어 공연 추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사업의 일환으로 '고니아'와 '뮤즈그레인'의 일본 투어 공연을 추진한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전북문화재단·전북문화재단·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공동주관하는 전북 음악창작소 사업과 협력, 소리축제가 개발하고 구축해 온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동원해 음악창작소 선정 팀들을 위한 해외 무대를 발굴했다.

그 결과 고니아와 뮤즈그레인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투어에 나서게 된다. 23일 도쿄와 25일 고베에서 두 차례



고니아(사진 왼쪽)와 뮤즈그레인(오른쪽).

공연을 진행할 이들은 일본의 월드뮤직 그룹 '키위 파파야 망고'와의 공연 및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협업을 모색하고 일본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고니아'는 기타 트리오 재즈 밴드로 김형택(기타), 김민성(베이스), 현정훈

(드럼)으로 구성됐다. 편안하고 감성적인 멜로디로 대중과 소통하는 재즈를 선사한다.

'뮤즈그레인'은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실험적인 음악을 지향하는 그룹. 김승재(보컬/기타), 변동준(건반/코러스), 임유경(바이올린), 최은석(드럼), 고은

혜(베이스), 이종원(일렉기타)이 함께 한다.

이들 팀은 모두 지난해 소리축제의 레드콘 분수대 무대에 올랐으며, '뮤즈그레인'은 해외초청팀 '오스쿠로 퀸트'와 콜라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공모 1162편 출품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할 한국영화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162편의 작품이 출품됐다고 밝혔다.

각 부문별 출품작 수는 한국경쟁 89편, 한국단편경쟁 871편, 지역영화 45편이다. 이와 함께 올해 경쟁부문과 분리하여 공모를 진행한 비경쟁부문의 경우 157편(장편 32편·단편 125편)으로 집계됐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한 한국경쟁은 극영화 60편, 실험영화 2편, 다큐멘터리가 24편, 애니메이션 2편 등 다양한 형식의 영화가 공모됐다.

모든 작품의 응모 자격을 '코리아프리미어'로 변경하면서 한국경쟁은 전년도보다 다소 공모작이 줄었으나, 경쟁부문과 분리해 공모한 비경쟁부문을 합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단편경쟁은 18회 영화제의 748편보다 123편이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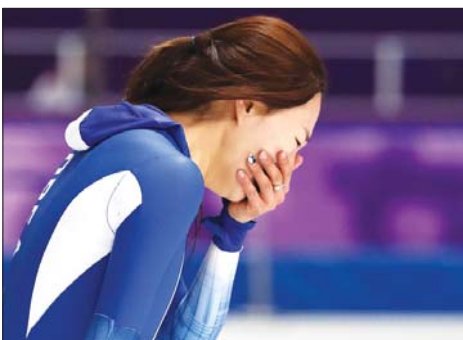
지역영화는 전북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의 재학생 작품 또는 50%이상 전북지역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한 작품을 대상으로 장편 5편, 단편 40편이 출품됐다.

영화제 사무처는 "올해는 기존에 초청작으로 구성됐던 비경쟁부문에 출품 방식을 도입하여 공모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며 "지난해 지역공모에 이어 올해 비경쟁부문을 분리했고, 모든 공모 자격을 '코리아프리미어'로 변경하여 기성의 틀을 탈피한 신선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영화 본선 진출작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화려하게  
격렬하게  
즐겁게**

19일 오전 강릉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쇼트 댄스 경기. 민유라·알렉산더 켄린이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상화

## "최선의 노력, 메달보다 빛나"

### 문 대통령, '여제' 이상화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뒤 울음을 터뜨린 '빙속 여제' 이상화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상화의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화 선수,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최선을 다한 노력이 메달보다 더욱 빛난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상화 선수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이상화 선수가 최고"라며 "영원한 빙상의 여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화는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로 진행된 여자 500m에서 37초33으로 결승선을 통과, 일본의 고다이라 나옴(36초93)에 0.39초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0밴쿠버동계올림픽(1·2차 합계 76초09)과 2014 소치동계올림픽(1·2차 합계 74초70)에서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며 '빙속여제'라는 수식어를 얻은 이상화는 3회 연속 금메달이 좌절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샀다. /뉴시스

## "마음 속 아리랑, 다 열겠다"... 민유라·켄린, 오늘 프리댄스

민유라(23)와 알렉산더 켄린(25)이 아이스댄스 쇼트댄스에서 16위에 올랐다. 20위까지 주어지는 프리댄스 진출권을 따냈다.

민유라와 켄린은 19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쇼트댄스에서 61.22점(기술 32.94+예술 28.28)을 받았다.

민유라의 의상에 문제가 생긴 팀이벤트 성적(51.97)보다 10 가까이 오른 점수다. 시즌 최고점인 61.97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목표 점수인 60을 넘겼다.

3번째 그룹에서 3번째로 나온 민유라와 켄린은 삼바를

바삼바 순으로 연기했다. 첫 롬바 시퀀스부터 레벨 4를 기록한 민유라와 켄린은 커브 라인 리프트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팀이벤트 쇼트댄스 이상의 점수를 따냈다. 싱크로나이즈드 트윙클에서는 레벨 1(2.51)에 그친 팀이벤트 성적에서 3계단 상승한 레벨 4(7.11)를 기록했다.

쇼트댄스 상위 20팀이 내서는 아이스댄스 프리댄스는 20일 오전 10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펼쳐진다. 민유라와 켄린은 '아리랑'에 맞춰 연기한다.

민유라는 "마음 속 아리랑을 다 열어서 보여주겠다", 켄린은 "서사, 이야기, 표현력에 무게를 두고 임하겠다. 우리의 스토리를 관객들과 같이 느끼고 싶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 무패 스웨덴 올렸다... 여자 컬링 '승승장구'

### 예선 6차전 7-6 승리... 5승 1패 기록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이 예선 전승을 달린 스웨덴에 첫 패배를 안기며 4강행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19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6차전 스웨덴과 경기에서 7-6으로 승리했다.

스킵 김은정(28), 서드 김경애(24), 세컨드 김선영(25), 리드 김영미(27), 후보 김초희(22)로 구성된 대표팀은 스웨덴과 함께 5승1패가 됐지만 승자승 원칙에 따라 예선 1위로 뛰어 올랐다.

20일 미국, 21일 러시아 출신 선수(OAR), 덴마크전을 남겨 두고 있다. OAR과 덴마크는 예선에서 1승에 그치고 있어 지금과 같은 경기력이라면 승리가 예상된다. /뉴시스

세계랭킹 1위 캐나다와 2위 스위스, 4위 영국을 차례로 제압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팀은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챔피언 스웨덴마저 무너뜨렸다.

3엔드까지 치밀한 눈치작전 속에 1-1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4엔드 불리한 선공이었지만 마지막 상대 실수를 이끌어내며 2점을 획득,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5엔드에서 후공인 스웨덴을 1점으로 막았고, 김은정의 완벽한 테이크 아웃으로 2득점을 하며 5-2로 앞섰다.

침착하게 실점을 최소화하는 대표팀의 경기 운영에 스웨덴은 이전 경기와 달리 실수를 연발했다.

후공인 8엔드에서도 2점을 추가하며 승기를 잡았다. 9엔드에서 2실점했지만 10엔드 후공인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리를 챙겼다. /뉴시스

## 23일 광주·전북 게임전시회 'G2FESTA'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호남지역 최초의 게임 전시회인 'G²FESTA(지투 페스타)'를 23부터 2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3전시장에서 개최한다.

G²FESTA(지투 페스타)는 'Game Generation(우리 모두 게임 세대)'과 축제라는 뜻이 담긴 'Festa'의 합성어로 전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게임 축제를 지향한다.

광주 28개, 전북 14개 총 42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테마파크형으로 꾸며진다.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능성 게임,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로봇, 홀로그램 전시, 코딩교육 체험 및 보드 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이 무료로 제공된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표 콘텐츠로는 (주)아이오의 태권도 VR, 진포대철 VR과 성춘원VR이트랙션을, (주)테크노블러드의 코리아 VR게임 몬스터룸, 사이렌트VR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신후 원장은 "이번 G2Festa는 지역의 우수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통해 지역기반의 게임인산업을 육성시켜 보다 넓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G²FESTA'는 올해 광주를 시작으로 내년 2월에 전라북도에서 교차 개최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립교향악단 'Haydn & Mozart' 23일 무대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신춘기획음악회 'Haydn & Mozart'을 23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서로의 예술에 영감을 주며 한 시대를 풍미한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을 오프닝으로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아르방 '베니스의 축제 변주곡, 하이든 교향곡 88번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대표하는 명곡을 차례로 들려줄 예정이다.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은 작곡자가 확실하지 않아 여러 작곡자명과 제명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이르러 음악학자 시미트에 의해 잘츠부르크 대사교의 궁정음악가였던 모차르트 아버지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연에선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곡은 내용이 무겁지 않고 현악합주에 새소리 장난감 악기를 곁들여 사용한 데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으며, 음악 자체는 교향곡이기 보다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오락음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과 아르방의 '베니스의 축제 변주곡'은 트럼펫 협주곡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또 다른 연주곡인 하이든의 '교향곡 88번'은 오늘날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 생기발랄한 주제와 참신한 유머감각, 그리고 특히 독창적인 2악장은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정해은 기자

